

【국 어 25문】

【문 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신체부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그네들이 자기 뒤통수에 먹일 쭉떡감자에 지레 오금부터 저리고 마는 것이었다.
- ② 상인이 별안간 노비 앞으로 달려들어 오지랖을 움켜쥐더니 아래로 주욱 훑어버렸다.
- ③ 그 때문에 분이 꼭뒀까지 오른 안주인한테 머리채를 꺼들려 방바닥에 함부로 나뒹굴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 ④ 한적한 소재지 한복판에 가해진 완장의 충격은 이를테면 잔잔한 수면을 퐁퐁퐁 깨우는 물수제비의 파문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문 2】 <보기 1>의 자유롭게 쓴 글감을 토대로 <보기 2>의 개요를 짤 때 글감을 잘못 이용한 것은?

<보기 1>	<보기 2>
㉠ 2004년부터 매년 물 부족	제목 : 댐 건설
㉡ 여름 장마 강수량 70% 집중 → 물 확보해야	주제문 : 환경 파괴..... 물 절약으로 극복
㉢ 물 수요 증가	개요
㉣ 시화호, 낙동강, 팔당댐 오염 -부영양화, 녹조현상	서론 :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댐 건설 찬 반론
㉤ 댐 많아졌어도 가뭄, 홍수 피해는 더 커짐	본론 1 : 댐 건설 찬성론
㉥ 자연생태계 파괴, 역사 문화 유산 수장됨	본론 2 : 댐 건설 반대론 1) 댐 건설 찬성 이 유를 반박 2) 댐의 폐해
㉦ 댐 해체가 세계적인 추세-미 국, 스웨덴 등	본론 3 : 물 부족 해결책
㉧ 건설한 댐 유지 관리비→애 물단지로 전락	결론 : 요약 및 강조
㉨ 물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 로 줄이기	
㉩ ‘물쓰듯 한다’는 속담 인용- 국민 의식 각성 필요	
㉪ 물 수요 관리하는 정책으로	

- ① ㉡, ㉢, ㉦을 본론 1의 이유로 내세운다.
- ② ㉤을 본론 2 - 1)의 자료로 제시한다.
- ③ ㉢, ㉥, ㉧을 본론 2 - 2)의 자료로 제시한다.
- ④ ㉨, ㉩, ㉪을 본론 3의 세부내용으로 제시한다.

【문 3】 아래의 ㉠ ~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형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업어 키우셨다.
- ㉡ 나는 어제 길 가다가 우연히 은사님을 뵈었다.
- ㉢ 할머니, 아빠가 방금 들어왔어요.

- ① ㉠-주체 ㉡-객체 ㉢-상대
- ② ㉠-객체 ㉡-주체 ㉢-상대
- ③ ㉠-상대 ㉡-객체 ㉢-주체
- ④ ㉠-상대 ㉡-주체 ㉢-객체

【문 4】 다음 글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田]을 보 내기 어려워져 서적으로 벼를 삼을 뿐인데, 어찌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③ 선례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 ④ 대조와 역설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 5】 다음 밑줄 친 각 단어의 쓰임이 문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출근은 지하철 사용을 권장한다.
지하철에서는 핸드폰 이용을 금지한다.
- ② 그 나라에서는 낙태를 입법화하였다.
공무원 윤리 규정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 ③ 교통신호 체계만 바꾸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 ④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것을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매년 많은 흡연자들의 새해 목표가 금연인 것을 보면 금연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6 - 7】

“우린 뒤편 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흠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췌,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구?”
“아뇨, 백화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루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다구.”
“뭇뻘예요?”
“넌들 아나, 뭇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그대루가 뭇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뭇에 쓰요.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뻘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문 6】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부 서술자의 눈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사물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 ③ 객관적인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제공하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적 심리를 보충하고 있다.

【문 7】 밑줄 친 ㉠에 나타난 ‘노인’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 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이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②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 ③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들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 ④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례자식들이
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문 8】 다음 글의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고기를 뀨(구워) 먹는다.” “밥을 뽉아(볶아) 먹는다.” “쪄주(소주)를 찢(진)하게 한 잔 한다.”라고들 한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고 나아가 표기까지 하는 현상은 어감을 크고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언중들의 의도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회귀현상도 일어나 원래 된소리인 ‘두껍’을 의식적으로 예사소리로 착각해서 ‘두깅’이라고 잘못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우스운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 ① 애긔은(←애긔은) 사람을 잡아 가두다.
- ② 나는 이 집에 눈곱(←눈뽍)만큼의 미련도 없다.
- ③ 어머니는 뽉배기(←뽉뽉기)를 마룻바닥에 놓고 앉았다.
- ④ 근무 전후의 자투리(←짜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다.

【문 9】 맞춤법에 오류가 없는 것은?

- ① 뭇돈 마련에는 적립식 펀드가 인기?
- ② 관리는 신선노름, 서민은 주름살
- ③ 증권사들 1월 장미빛 전망 빗나가
- ④ 은행, 부자엔 후하고 빈자엔 켜제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0 - 11】

[가] 구름 비치 조타 하나 검기를 주로 한다.
 벼람 소리 뭇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론인가 하노라.

[나] 고즌 무스 일로 뛰며서 쉬이 디고,
 플은 어이하야 푸르느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희뿐인가 하노라.

[다] 더우면 곳 뛰고 치우면 님 디거늘
 술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르느다.
 九泉(구천)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라]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뛰연느다.
 더러코 四時(사시)에 푸르니 그를 묘하하노라.

【문10】 이 노래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여 강한 호소력을 얻고 있다.
- ③ 시어의 반복을 통하여 정서를 점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④ 개인의 정서 표출보다 집단의 정서를 주로 노래하고 있다.

【문11】 [가]~[라] 중 노래의 대상이 아래 글과 같은 것은?

흙을 밟고 생겨난 죽순적 뜻을 그대로
무엇에도 개의찮고 호올로 푸르리
구름송이 스쳐가는 창궁(蒼穹)을 향하야
오로지 마음을 다하는 이 청림의 대는
노란 주둥이 새 새끼 굴러들 듯 날려 앉으면
당장에 한거루 수묵(水墨)이 향그론 그림이 되고
푸른 달빛과 소슬한 바람이 여기 잠기며
다시 찾을 수 없는 유현(幽玄)한 죽림의 일원이 되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문12】 다음 한자성어를 속담으로 표현해 보았다. 의미상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目不識丁：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② 十伐之木：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走馬看山：달리는 말에 채찍질
- ④ 觸角殺牛：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문13】 다음의 글에서 밑줄 친 ㉠의 뜻과 가장 가까운 것은?

나는 고서(古書)와 고화(古畵)를 통해 고인과 더불어 대화 하면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그 손때로 곁은 먹 너머에 생각의 보금자리 속에 고이 갇히고 싶어서다.

사실, 해묵은 서화(書畵)에 담긴 사연을 더듬는다는 그 마련부터가 대단히 즐겁고 값진 일이니, 비록 서화에 ㉠손발인 나라 할지라도 적잖은 반기가 끼쳐짐에서다.

- ① 무뢰한 ② 문외한 ③ 전문가 ④ 호사가

【문14】 다음 글에서 길게 발음해야 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 ㉠말이 ㉡말을 하는 이상한 나라.
- ㉢밭에 ㉣밭을 구워 먹었다.
- ㉤사과(謝過)의 뜻으로 ㉥사과(沙果)를 하나 주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문15】 다음에서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가뭇-가뭇
- ② 고까-꼬까-때때
- ③ 광주리-광우리
- ④ 삼살개-삼사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6 - 17】

[가]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나] 서술어는 그 성격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들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문16】 다음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어, 서술어 ② 관형어, 부사어
- ③ 목적어, 보어 ④ 독립어

【문17】 다음 글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할아버지께서 설에 동생에게 인형을 주셨다.

- ① 한 자리 ② 두 자리
- ③ 세 자리 ④ 네 자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8 - 20】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기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績)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중국같이 큰 나라도 인재를 빠뜨릴까 걱정하여 늘 그 일을 생각한다. 잠자리에서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에도 탄식한다.

어찌하여 숲 속과 연못가에서 살면서 큰 보배를 품고도 팔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고, 영결한 인재가 하급 구실아치 속에 파묻혀서 끝내 그 포부를 펴지 못하는가? 정말, 인재를 모두 얻기도 어렵거니와, 모두 거두어 쓰기도 또한 어렵다.

우리 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宰相)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은 재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科擧)로써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금에 적이 많은 아들의 재주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우리 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 번 시집 간 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조막만하고 더욱이 양쪽 오랑캐 사이에 끼여 있는 이 나라에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할까 두려워해도 더러 나랏일이 제대로 될지 짐작 수 없는데, 도리어 그 길을 스스로 막고서 “우리 나라에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한다. 이것은 ㉠남쪽 나라를 치러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내달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참으로 이웃 나라가 알까 두렵다.

한날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이 마음이 언짢아 오늘월에도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홀어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평한 기운을 불러 오기는 어려우리라.

【문18】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나라에는 인재가 드물게 난다.
- ② 오랑캐 출신의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
- ③ 이름 없이 살다가는 인재가 많이 있다.
- ④ 하늘은 인재를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고루 내린다.

【문19】 ㉠의 문맥적 의미와 통하는 한자 성어는?

- ① 進退維谷 ② 二律背反
- ③ 朝令暮改 ④ 炎涼世態

【문20】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왕후장상(王侯將相)의 씨가 어디 있느냐?
- ②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 ③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더냐?
- ④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1 - 23】

[가]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어라.
若不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으리.

[나] 公無渡河 임은 강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그에 강을 건너시다가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임을 어찌할거나.

[다] 생사(生死)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문21】 [가]~[다]의 대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나] 노동요, [다] 의식요
- ② [가] 소망과 기원, [나] 슬픔, [다] 추모
- ③ [가] 집단적인 노래, [나]·[다] 개인적인 노래
- ④ [가] 명령과 위협, [나] 독백과 탄탄, [다] 다짐과 기원

【문22】 다음 중 발상과 표현이 [가]와 유사한 것은?

- ① 철호야! 나 좀 도와 줘, 빵 사 줄게.
- ② 애야! 그 쪽은 안돼, 왼쪽으로 가야지.
- ③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 ④ 이봐! 빨리 보내. 안 보내? 당신하고 거래 끊을 거야.

【문23】 ㉠~㉣의 풀이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 : ‘우두머리’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 : ‘죽음’의 이미지[심상(心象)]가 들어 있다.
- ③ ㉢ : 지은이 자신을 가리킨다.
- ④ ㉣ : ‘같은 부모’를 뜻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24 - 25】

21세기 지식 문화 사회의 핵심 역량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능력’이다.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삶의 질을 높이는 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창조·교환된다. 이른바 ‘문화기술’이 지배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혁명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산업화에 뒤져 있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지식 사회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한글이다.

한글의 장점은 우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근대산업국가로 단기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보급, 즉 문맹 퇴치에 따라 정보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덕분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선언문에서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날마다 쓰는 데 편안케 하고자 한다.”고 밝힌 의도에 걸맞게, 한글은 정보 대중화에 아주 적당한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이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공로상을 ‘세종대왕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정보 대중화가 한글에 크게 힘입었다는 것을 인정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한글의 첫 번째 강점은 한글이 지니는 두 번째 강점, 즉 ‘정보화에 유리한’ 문자 체계라는 점과 연결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을 더욱 빛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자국 언어를 정보화하는 일의 중요성은 더 없이 크다.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패한 한 원인으로 타자기를 활용한 알파벳과의 정보전에서 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계식 타자기에 입력이 용이한 음소 문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쉽게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중국어, 일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 대중화 능력을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글 정보화의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20세기 후반까지 한글 기계화는 몇 가지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타자기 표준 자판 논쟁’(2벌식이나 4벌식이나 등을 놓고 벌어짐)이나 ‘한글 풀어쓰기 논쟁’(초성, 중성, 종성을 나란히 늘어쓰자는 것) 등이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표한다. 그런데 이 같은 타자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긴 문제들은 성능 좋은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한글 창제 당시부터 이미 표기 원리에 내재되어 있던 ‘한글 오토마타’(한글의 초성과 종성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규칙)의 원리 덕분에 한글 컴퓨터 자판은 지금과 같은 2벌식으로 정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딴 기본자 ㄱ, ㄴ, ㄷ, ㄱ, ㅇ에 ‘가획(加劃, ㄱ에서 획수를 더하면 ㅋ과 ㆁ이 됨)’이나 ‘천지인’과 같은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는 현재 휴대폰의 자판 입력 방식으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일본어, 중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알파벳 자판보다 더 우수한 원리를 바탕으로 편리하게 정보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음과 모음의 자판이 분리되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10개의 자판만으로도 손쉽게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기반한 시장 영역을 점점 키우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이나 DMB 기기를 통한 정보의 생산과 교환 활동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게임이나 영상물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통한 정보 교환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다중 접속온라인 게임이나 VOD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형태가 그 예다.

앞으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도 예상된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배우기 쉽고 정보화에 유리한’ 한글의 강점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한글창제 560돌을 맞는 오늘, 시대를 앞서간 세종의 철학과 언어학적 비범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문24】 위 글로 미루어 보아 한글 창제의 원리로 맞지 않은 것은?

- | | |
|--------------|--------------|
| ① 상형(象形)의 원리 | ② 가획(加劃)의 원리 |
| ③ 합용(合用)의 원리 | ④ 표의(表意)의 원리 |

【문25】 위 글에 제목을 붙이자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지털 시대에 더 빛나는 한글
- ② 이젠 한글표기법 독립운동할 때
- ③ 한글의 표기능력 확충을 위해
- ④ 한글로 세계문명을 바꾸자